

작은 공공건축이 동네의 풍경을 바꾼다

김창균
유타건축 소장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마다 건축가는 유재석보다 더 공인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을 곧잘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도시나 시골 어디에서나 보기 싫어도 보는 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지어지는 순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어 공공적 가치를 지니는 공공재이다. 이러한 공공재인 건축물을 다루는 건축가에게는 누구보다도 공공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건축의 공공성은 어제 오늘만의 논의가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와 건축의 공적인 역할은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대형 관공서 건축물이거나 극장·공연장·미술관·광장 등 다중이용시설만의 몫이라고 여겨왔다. 그렇다 보니 이런 공간들은 주로 자본이 몰리는 도심이나 대로변에 몰려 있게 되어 가까이 살지 않는 한 대부분 집에서 멀리 교통수단을 이용해 찾아다녀야 한다. 기껏 동네에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 작은 공공건축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존재들이고, 이를 제외하면 그나마 공공건축물이나 공간은 찾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걸어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걷는 길은 아파트 담장의 옆길이고,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골목은 차량을 피해 걸어 다니기 바쁘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공원이나 도서관 등이 있는 동네는 몇몇뿐이다.

건축에서 공공성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며, 공공성은 공공복리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경기대학교 이영범 교수는 “공공성은 도시에서의 삶이 개인과 사적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공적 영역으로 전이되어, 공유와 공존의 가치가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동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공공성으로 인해 삶과 공간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에너지와 성격이 결정된다. 공간이 자본에 의한 사유의 잉



배봉산 컨테이너 도서관

여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공간의 사회적 가치에 의해 공유의 에너지를 만들어 모두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지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나 건축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간을 통해 일상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일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일상의 도시와 건축에서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건축에서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공중(public)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거창한 의미의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과의 사소한 관계, 열림, 공유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건물, 선뜻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관공서라고 할지라도 길과 관계하고 대중과 소통할 때 공공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의 행동과 소소한 삶이 그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와 같은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작더라도 내용과 의미 그리고 실제 사용성과 파급효과가 더 중요하다. 필자가 작업한 몇 가지 작은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실질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걸어서 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공건축물이 동네의 풍경을 바꾼다

삼청가압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공공건축이 가지는 장소성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60년도에 지어진 삼청가압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상수도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였고, 동시에 변화하는 삼청동길에 대응하되 가로경관과의 조화와 공공의 개방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해야 하였다. 이곳에는 관공서처럼 보이도록 하는 단순 리모델링 방식이 아니라, 기존 도시 맥락을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역할을 덧대어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벽돌쌓기 방식을 다채롭게 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건물의 실루엣이 드러나 건물 내외부가 소통하도록 해 보았다. 반쯤 열리고 반쯤은 닫힌 적벽돌 입면은 시간이 중첩된 삼청동길 흔적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시간대별로 묘한 리듬감과 변화를 제공한다. 최



삼청가압장 변경 전(좌)과 변경 후(우)



근에는 바로 옆 카센터가 카페로 바뀌고, 금융연수원 담장이 가압장과 같은 패턴의 벽돌로 쌓였다.

또한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삼청가압장 정면 앞 계단과 마당에서 쉬었다 가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무겁고 무의미하게 여겨왔던 작은 건물의 소소한 변화가 거리 모습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변화를 준 것이다. 이를 통해 작고 소소한 장소라 할지라도 주변 풍경을 따뜻하고 조금은 활기차게 이끌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컨테이너 작은 도서관은 컨테이너 박스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쉼터 겸 걸어서 5분에 이용가능한 도서관으로 디자인하였다. 청량리역 광장, 배봉산 근린공원, 장안동 벚꽃 뚝방길에 놓인 작은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 가려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산책하다가 혹은 아이들과 놀다가 자연스럽게 쉬면서 책을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다.

청량리역 광장의 도서관은 기존 공항버스 정류장 자리에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만들어, 버스를 기다리거나 청량리역과 백화점을 이용하는 중간에 들를 수 있다. 또 배봉산 근린공원 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함께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보호자들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동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사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던 보호자들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근처에서 책을 빌려 보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 배봉산 작은 도서관은

컨테이너에 마을 행사를 위한 작은 무대를 덧붙여 어린이집과 노인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민들이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장안동 벚꽃 뚝방길 작은 도서관은 이미 서울시가 ‘아름다운 봄 꽃길’로 선정할 만큼 경관이 빼어나고, 중랑천을 바라보며 사색을 곁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근처 아파트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마을 정자와 같은 작은 그늘 휴게 공간을 증축해서 편안한 책 읽기가 가능하다. 특히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는 삼삼오오 비를 피해 찾아온 주민들이 그늘 휴게 공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서 보유량은 2,500권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지만 이견 중요하지 않다. 인근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책을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손에 닿는 문화복지의 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향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동안 도시 가로에서 랜드마크로 그 위용만 과시하고, 도서관 내부는 임시 등 공부를 위한 자리만 가득하던 관리자 중심의 닫힌 도서관은 이제 점점 그 존재 이유를 잃어 갈 것이다.



© 인제대



뚝방길 컨테이너 도서관(상)과 청량리 컨테이너 도서관(하)



서울시립대학교 휴게홀 변경 전(좌)과 변경 후(우)

건축이 가진 공공성의 가치는 그곳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사 휴게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학사 휴게홀은 기숙사 건물의 필로티 공간으로 계획된 곳으로, 기존에는 학생들의 흡연 장소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당연히 산책을 나온 지역주민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였다. 필로티 형식의 지붕이 있는 외부공간이지만 이전의 모습은 단지 빈 공터였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기에는 부족한 곳이었다.

이곳을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도록 하여 열핏 나무로 둘러싸인 휴게 공간 같지만 외부 환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곳으로 디자인하였다. 그 결과 동굴처럼 일체화된 벤치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쉬기도 하고 나무들의 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과 바람을 맘껏 맞는다. 때로는 지인이 지나가면 인사를 나누고, 여름밤에는 더위를 피해 찾아와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쉽게 이용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온 엄마와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어르신들도 자주 보인다.

휴게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목재 데크만 설치하였다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과 조화되면서도 새로운 시도의 디자인을 가진 공공건축물을 만들었고, 거기에다 누구나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려지다시피 한 유휴공간에 공간과 시간, 거기에 변화하는 자연환경을 더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버려진 공간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다층의 공공장소로 다시 태어났다.



상상어린이공원 화장실 변경 전(좌)과 변경 후(우)

동네 공중화장실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공건물이다. 특히 멋진 공원 안의 공중화장실보다 아파트 단지 내 화장실이나 산책 중 마주치는 가로변 공중화장실은 어떤 공공건축 못 지않게 중요하다. 화장실이라는 공공건축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자극적인 형태보다는 주변 동네 풍경에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유니버설 디자인에 충실하여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울 노원구의 상상어린이공원 화장실은 밀집된 주공아파트 단지 안에서 기능과 건축미를 모두 상실한 채 흉물로 남아 있던 공중화장실이다. 이곳을 리모델링하면서 우선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생기는 주변 맥락의 특성상 어린이의 움직임과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이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 남녀의 구분이 애매해서 시선이 부딪히곤 하였다. 또 출입 공간에 계단이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부터 개선하였다. 먼저 출입 공간 계단을 없애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록 모양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동선을 분리하였다. 특히 다양한 움직임과 시선에 반응할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정하였다. 재료의 특성을 살려 구축하되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외부를 디자인하였다.

작은 어린이 공원에 인접한 이곳은 이제 주간에는 놀이시설의 일부로, 야간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 경관조명을 비추는 랜턴으로 작동한다. 아이들은 화장실 앞에 자전거를 두고 뛰어놀거나 친구들과의 ‘접선 장

소'를 화장실 앞으로 정하기도 한다. 작지만 동네의 풍경을 바꾸는 랜드마크가 된 것이다.

작은 건축으로 할 수 있는 가까운 공공성을 만들자

흔히 공공성은 관(官)에서 발주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발주자 혹은 관리자 모드에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공공성일 뿐 정작 그곳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공공공간을 만드는 일은 공(公)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담당하는 건축가의 실력에만 의존할 것도 아니다. 모두가 함께[共]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광장은 도시에서 단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어울리고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때 의미를 갖게 되고, 공공건축물은 민원을 위해 이용할 때만이 아니라 항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원래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즉 모든 것을 공유(share)할 열린 자세를 가질 때, 드디어 민원인이 아닌 진짜 사람이 모인다. 즉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사람들은 도시 생활의 무수한 반복 속에서 많은 공공건축물을 우연히 지나친다. 하지만 그 건축물의 이름(○○파출소, ○○동사무소, ○○도서관)만 기억할 뿐 그 내부나 주위 공간을 동네 공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특정인과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그들만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울시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을 통해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과 장소 활용이 활발하다. 흔히들 이와 같은 대형 건축물만 공공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 파출소, 작은 도서관, 우체국 등이 그 장소성의 의미와 함께 공공적 가치와 파급효과는 훨씬 크다. 이러한 작은 단위의 공공건축물이 시작점이 되어 확대되어 나갈 때 도시의 풍경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선거를 할 때마다 많은 지자체장이 랜드마크 같은 건축물로 일회성의 거대한 실적을 약속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 근처에서 지속적인 즐거움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상의 장소이다. 한강에 떠 있는 새빛둥둥섬을 1년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